

방역완화에 확진자 감소 둔화…“급증 없을것”

“감소세 평행유지 전망…금주 추이 봐야”

“감염 소폭 지속…거리두기 해제 영향도”

정부가 최근 둔화 중인 코로나19 확진 감소 추세에 대해 “당분간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종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가을철까지 소규모 유행이 반복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부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

청사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기자 설명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확진자 감소 추이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다만 당분간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 부장은 향후 추이에 대해 “확진자 감소세가 연속되면서 종식될 거라 보진 않고 일정 단계에서 감소세

가 둔화되면서 평행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며 “실제 그런 단계에 진입한 것인지는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 규모가 감소세 ‘유지’인지 ‘정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주 추이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01명으로 전주(2일) 2만76명보다 525명 늘었다. 어버이날인 전날(9일) 신규 확진자도 1만6867명으로 1주 전 1만6547명보다 소폭 증가해 일각에선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손 부장은 이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수가 면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이가 꺾이기 시작했고 줄고 있지만 미감염자들의 소폭 감염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며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감소 추이 변동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대응 여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하늘을 나는 응급실’ 전남 닥터헬기 환자이송 2500회 ↑

2011년 전국 첫 도입…문금주 도지사 권한대행 현장 격려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 방문한 문금주 권한대행.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도서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하늘을 나는 응급실’ 전남 닥터헬기가 10년7개월 만에 환자 이송 25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를 위해

119 상황실이나 의료기관 요청 시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가 탑승해 출동한다.

증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남은 삼파 오지가 많아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박종배 기자

증상별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이내다.

2020년 3월12일에는 하늘에 떠 있는 닥터헬기 안에서 출산이 이뤄지는 등 이송 중 기적도 일어났다. 완도 노화에서 산모와 함께 이륙 3분 만에 긴급함을 확인하고 이송 중 분만을 결정, 2.9kg의 여아를 출산했다.

헬기는 20분 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해 기다리던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무사히 인계, 건강하게 퇴원했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이송 2500회 돌파를 기념해 이날 닥터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운항사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닥터헬기 운항으로 취약지역 증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취약지 응급환자 생명을 든든히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배 기자

전남교육청, 20일까지

5·18 42주년 기념주간 운영



전남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교과와 행사활동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연대·공동체정신을 되새긴다.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자료 배부·민주묘지 참배·명사초청 강연·학교로 찾아가는 수업·교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억, 전남의 5·18이야기’ 책자, ‘오월길을 따라서’ 보드 게임, 수업꾸러미 등 수업자료와 리플렛을 희망 학교에 배부했다.

이 밖에도 전남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남의 학생들이 함께 주먹밥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연대했던 오월을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약수터 7곳 수질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 산행 등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7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산장광장과 청풀쉼터, 용진, 구 중심사 입구, 너털경 등 모두 7곳이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약수터 수질 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에서 매년 4차례를 검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8차례 추가해 12차례 검사를 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계획이다. 분석 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 영향무기물질 12개 항목 ▲폐 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모두 48개에 이르며,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와 소독 등 시설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 적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자

농장직영 진남 맴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농장직영

어서오십시오

진남 맴생이탕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94건 접수

광주·전남경찰 76건 중 49건 수사중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94건인 것으로 잡정 파악됐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시·도 선거 관리위원회에 접수된 6·1 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광주 18건, 전남 100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현재 접수한 18건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관련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17건은 경고 조치했는데 인쇄·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행위 등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인쇄·시설물 관련 2건 순이었다.

전남도선관위는 적발된 선거 관련 사건 100건 가운데 18건을 고발했다.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 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인쇄·시설물 관련 2건 순이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4건, 공무원 선거 관여 4건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전남경찰에도 현재까지 선거 관련 사건 76건이 접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14건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후보자 비방 7건, 허위사실 공표 5건, 기부 행위 2건 등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조사 대상자는 20명이다.

전남경찰청에는 선거 관련 사건 62건이 접수됐다. 이 중 18건은 불구속 송치됐다. 9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용범 기자

순천소방 119생활순찰대 안전지킴 ‘톡톡’

순천시·구례군 취약계층 안전 확보 위해 활동 지속

순천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순천시·구례군의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초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전전문가(소방방관)이 한가구, 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공간 위험을 제거하는 생활밀착형 활동이다.

순천소방서는 현재까지 688가구를 방문해 911명의 수혜자에게 13212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해남소방서, 제4회 ‘119문화상’ 공모전 개최



‘119문화상’은 재난 현장의 소방 활동, 미래의 소방관, 과거 대형 재난 등을 소재로 한 문학·미술 분야 창작품 공모전으로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격은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이며 신인 또는 기성작가 또한 참가 가능하다.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접수 기간은 7월 한 달간으로 119문화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해남 김동주 기자